

라 트 비 아

2003. 9

이철원

(cwlee@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64,589km²(한반도의 약 1/3 정도)
- 인 구: 235만 명(2002년 기준)
- 기 후: 전반적으로 해양성 기후, 일부는 대륙성 기후(여름 평균 기온은 20. C이고, 겨울 평균 기온은 -5. C임.)

□ 행 정

- 공식국명: 라트비아(Latvia)
- 수 도: 리가(Riga)
- 주요도시: 리가(76만 명), 다우가필스(Daugavpils, 11만 명), 리에파야(Liepaja, 9만 명), 엘가바(Jelgava, 6만 명), 벤츠필스(Ventspils, 4만 명)

□ 정 치

- 정부형태: 대통령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 국가수반: 비케-프라이베르가(Vaira Vike-Freiberga) 대통령
 - 임기: 4년, 1번 연임 가능
 - 1999년 6월 의회에서 선출
- 의회형태: 단원제
 - 임기: 4년
 - 의석 수: 100석
- 행정부: 최고 수반은 총리
 - 총리: 랩세(Einars Repse)
 - 2002년 10월 총선 승리
- 최근 선거
 - 총선: 2002년 10월
- 차기 선거
 - 총선: 2006년 10월

□ 사회·문화

- 민 족: 라트비아人(56%), 러시아人(32%), 벨로루시人(4%), 우크라이나人(3%), 폴란드人(2%)
- 언 어: 라트비아語(공식언어), 러시아語
- 중 교: 루터복음교(35%), 러시아정교(15%), 로마카톨릭 등
- 도 량 형: 미터法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91년 10월
- 협정체결: 투자보장협정(1996. 10), 이중과세방지협정(1999. 12), 사증면제협정(2003. 5)
- 韓·라트비아 교역규모(2002년): 1,720만 달러
 - 韓國 1,589만 달러 黑字
 - 韓國의 對라트비아 直接投資: 없음
 - 주요 수출품목(2002년 MTI 3단위 기준): 자동차(18.5%), 인조섬유장섬유사(13.8%), 의류(12.4%)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주요지표	단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인구	백만명	2.42	2.40	2.38	2.37	2.35
명목 GDP	십억달러	6.09	6.65	7.18	7.66	8.41
1인당 명목GDP	달러	2,515	2,778	3,021	3,239	3,583
실질성장률	%	4.8	2.8	6.8	7.9	6.1
실업률(연말기준)	%	9.2	9.1	7.8	7.7	7.6
소비자물가상승률	%	4.7	2.4	2.6	2.5	1.9
재정수지(GDP대비)	%	0.3	-3.7	-2.8	-2.1	-2.8
수출	십억달러	1.8	1.7	1.9	2.0	2.3
수입	"	3.2	2.9	3.2	3.5	4.0
무역수지	십억달러	-1.4	-1.2	-1.3	-1.5	-1.7
경상수지	"	-0.7	-0.7	-0.5	-0.7	-0.7
환율(연평균)	LVL/USD	0.590	0.585	0.606	0.628	0.618
외환보유고	백만달러	881	913	919	1,219	1,285

자료: Global Insight. 2003. *Emerging Europe Overview*. (July)

EBRD. 2002. *Transition Report 2002*. (October)

2. 향후 경제전망

주요지표	단위	2003	2004	2005	2006
실질 GDP증가율	%	6.2	6.2	6.0	5.9
소비자물가상승률	%	3.4	3.6	4.0	4.4
무역수지	십억달러	-2.3	-2.5	-2.7	-2.9
환율(연평균)	LVL/USD	0.646	0.639	0.620	0.610

자료: Global Insight. 2003. *Emerging Europe Overview*. (July)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주요 수출품목>					
나무·나무제품	29.7	33.5	37.3	37.4	34.0
섬유류	15.5	16.1	15.4	14.1	14.1
화학제품	6.6	5.8	6.1	6.4	6.4
기타 제조품	4.2	4.8	5.4	5.3	5.7
기계·장비	9.1	6.8	5.0	5.5	6.4
식료품	10.1	6.7	3.8	3.5	5.7
수송장비	2.1	1.6	1.4	1.4	1.9
전체	100	100	100	100	100
<주요 수입품목>					
기계·장비	19.3	20.5	22.0	20.7	21.1
화학제품	10.9	11.1	12.0	10.6	10.4
광물제품	14.0	10.5	11.4	12.9	11.1
수송장비	8.3	10.4	8.3	7.8	9.4
섬유류	7.8	7.8	7.7	7.7	7.4
금속제품	8.0	8.5	7.0	8.4	8.3
식료품	7.0	7.1	6.7	5.9	6.2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 EIU, 2003. *Country Profile 2002: Latvia*.

나. 국별 수출입(2001)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주요 수출상대국>					
EU	48.9	56.6	62.5	64.6	61.2
영국	14.3	13.5	16.4	17.4	15.7
독일	13.8	15.6	16.9	17.2	16.7
스웨덴	8.3	10.3	10.7	10.8	9.6
리투아니아	7.5	7.4	7.5	7.6	8.1
덴마크	3.9	5.1	6.1	5.8	5.8
에스토니아	4.2	4.5	4.7	5.3	5.7
러시아	21.0	12.1	6.6	4.2	5.9
우크라이나	3.9	2.9	2.9	3.2	1.7
네덜란드	2.4	3.5	3.5	2.8	3.7
전체	100	100	100	100	100
<주요 수입상대국>					
EU	53.2	55.3	54.5	52.4	52.6
독일	16.0	16.8	15.2	15.7	17.0
러시아	15.6	11.8	10.5	11.6	9.2
핀란드	9.7	9.5	9.1	8.6	8.0
리투아니아	6.4	6.3	7.3	7.6	8.5
스웨덴	7.7	7.2	7.2	6.7	6.5
에스토니아	6.0	6.6	6.4	6.2	6.3
덴마크	3.5	3.8	3.9	3.6	3.7
영국	3.3	3.1	3.3	2.7	2.4
우크라이나	2.0	1.9	1.1	1.3	1.4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 EIU. 2003. *Country Profile 2002: Latvia*.

다.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외국인직접투자	382	521	357	348	408	201(2,216)
해외직접투자	3	6	54	17	10	7(248)

주 : ()는 누적치

자료 : UNCTAD. 2002.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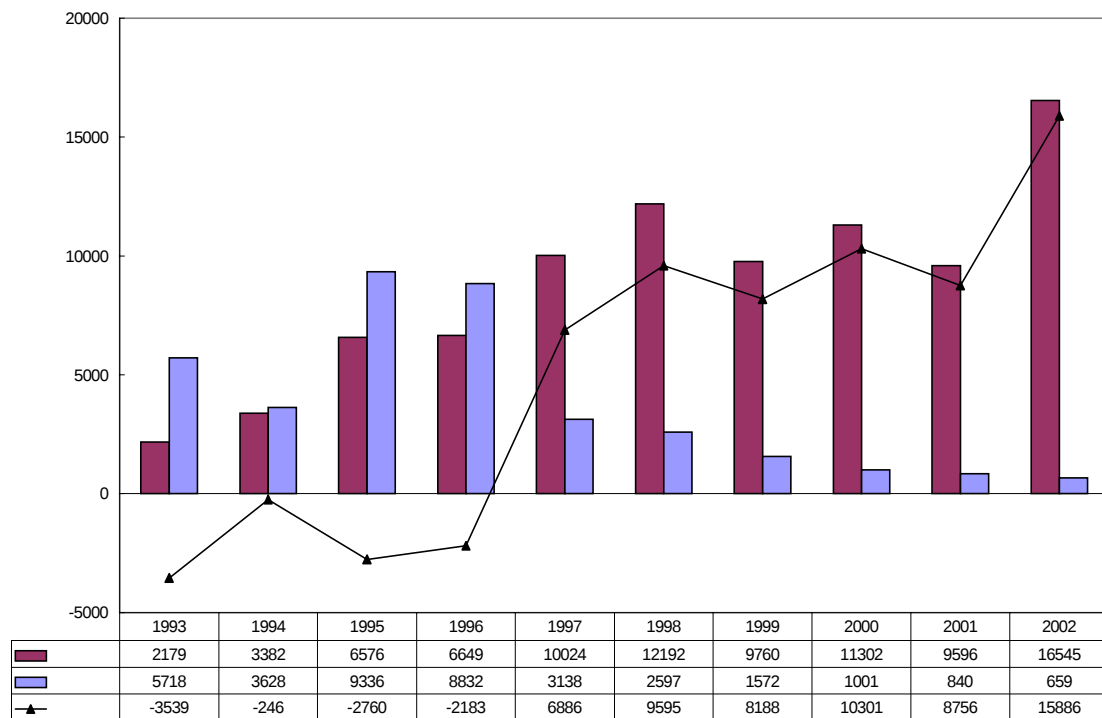
4. 韓・라트비아 경제관계

가. 교역

□ 교역비중

- 對라트비아 수출은 한국 총 수출의 0.01%(2002년 기준)
- 對라트비아 수입은 한국 총 수입의 0.0004%(2002년 기준)

□ 연도별 수출입 추이(단위: 천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 업종별 수출입 내역(2002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자동차	3,064(18.5)	합금철선철·고철	203(30.8)
인조섬유장섬유사	2,289(13.8)	신발	106(16.1)
의류	2,050(12.4)	기타기계류	60 (9.1)
기타철강금속제품	1,216 (7.3)	인조섬유장섬유사	59 (9.0)
무선통신기기	1,112 (6.7)	산식물	45 (6.8)

주 : MTI 3단위 기준, ()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투자

□ 한국의 對라트비아 해외투자: 없음

Ⅲ. 경제현안

1. 라트비아 경제현안

가. 개요

□ 라트비아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침체기, 19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기, 2000년 이후의 경제성장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경제침체기(1989~1995년): 급진적인 경제개혁으로 인한 과도기적 어려움으로 체제전환 초기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함. 1995년 GDP는 1989년의 54% 수준으로 하락함.
- 경제회복기(1996~1999년): 경제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서 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유입의 증가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
- 경제성장기(2000~현재): 러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1999년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이후 2000년 들어 수출증가 등의 요인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됨.

□ 최근의 경제성장세는 환율안정에 따른 수출증가, 저금리에 따른 투자증가 등과 함께 고용증가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진작에 의한 것임.

- 1994년부터 통화위원회 제도를 도입, 고정환율제를 시행함으로써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안정을 달성함.
- 2003년 1~6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EU와 CIS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각각 37.4%와 24.3% 증가를 기록, 모두 호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라트비아를 EU시장에 편입된 후에도 공동시장의 거대한 경쟁압력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시장경제로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와 함께 同 위원회는 라트비아 경제의 선결과제로 경상수지적자 개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완료, 사법제도의 개선과 부패 청산 등을 지적하고 있음.

나. 시장특성

□ 소비 및 구매패턴

- 전체 인구의 27%가 퇴직한 중년층인바, 대체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전체 노동인구의 48.8%가 여성으로 대부분 가정이 자녀 1명의 핵가족이며, 낮은 출산율과 이민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고소득층을 이루고 있는 전체 인구의 5~10%가 고부가가치 상품의 주된 소비층이며, 10~15%의 그 다음 고소득층이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신흥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음.
- 상품의 국내 생산량은 자원부족으로 국내수요의 70~80%만을 충족시키고 있고 지역적 근접성, 역사적 유대관계, 정부의 지지, 고품질 등으로 유럽상품이 수입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호텔·레스토랑 사업이 최근 3~4년간 급속도로 발전하였는데, 대부분이 외국인과 합작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비층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나 상위 5%의 부유층임.

□ 유통구조

-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Riga)는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과 함께 상업, 금융, 교통의 중심지이며, 이러한 지정학적 입지조건으로 라트비아 산업은 러시아와 유럽간 통과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비재의 유통은 대형유통점과 도매상이 아직 부족하나,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식료품의 도소매업과 수입은 소규모의 기업과 민간도매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라트비아 유통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유럽에서 밀수입되어 대량 수입품이 매매되는 암시장으로 주로 관세를 피하기 위해 트럭으로 운반되어 소규모 상점을 통해 유통됨.
- 계절상품인 농산물과 음식은 소규모 시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도시 시장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됨.

다. 경제현안

- 체제전환 초기 超인플레이 현상을 보였으나, 적극적인 물가안정책으로 최근 들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는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다소 호전되고 있는 추세임.
- 체제전환 초기인 1992년에는 951%에 달하는 超인플레이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라트비아 정부는 물가불안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연간 2%대에서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1996년에 19.4%에 달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활성화로 실업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7.6%까지 개선됨.

□ 오는 2003년 9월 20일 라트비아는 EU가입 여부를 묻은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EU 가입협정을 비준하고 2004년 5월 EU가입을 확정할 예정임.

- 1999년 12월 헬싱키 EU 정상회담에서 2차 가입대상국으로 선정되어 2000년 3월부터 EU가입협상을 개시함.
- 지난 2002년 12월 코펜하겐 EU 정상회담에서 가입협상을 마무리하고 2004년 가입을 사실상 확정함.
- 지난 2003년 4월 16, 17일 양일간 아테네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EU가입조약에 서명함.
- 오는 9월 20일 국민투표에서 EU가입이 확정되면, 라트비아는 2004년 5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EU 회원국이 되며, 그해 6월부터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됨.

라. 경제전망

□ 단기적으로 라트비아는 제조업, 국내유통, 금융·비즈니스서비스 부문의 견고한 성장으로 2003년에 약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동안 서비스 부문으로부터의 부가가치가 6.2%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견실한 투자증가는 2003년 총수요를 7.2%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내수진작으로 200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다소 높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수요 증대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적자가 각각 GDP의 26.8%와 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기적으로 제조업과 수송 부문의 성장과 민간투자의 활성화로 라트비아는 2004~07년 동안 연평균 6.0% 정도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는 어느 정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대외수지 불균형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과 수송 부문이 주요 성장동력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은 上記 4년 동안 연간 6%, 수송 부문은 7%에 가까운 성장을 거둬들 것으로 전망됨.
- EU 가입과 함께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정부부문의 투자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07년까지 연간 6.7% 이상의 투자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7년 동안 소비증가율은 3% 정도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외수지 불균형은 통제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바, 2007년까지 무역수지적자는 GDP의 23%, 경상수지적자는 同 5.1%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 라트비아는 EU 가입으로부터의 편익을 극대화하여 견실한 경제성장을 거둬들, 2008~25년 동안 연평균 4.8%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는 인구의 감소추세와 함께 1인당 GDP의 상승으로 이어져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2002년에 8,386달러였던 라트비아의 1인당 GDP는 2025년에 30,670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 명목임금 상승이 다소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라트비아는 2007년을 전후로 경제·통화동맹(EMU)에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EU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서 유지될 것임.

-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의해 건전한 재정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EU 예산으로부터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FDI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 韓 · 라트비아 경제현안

가. 개요

1) 교역

□ 1991년 10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 한국과 라트비아의 교역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음.

- 그러나 1997년부터 외환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對라트비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양국간 교역은 잠시 주춤하였으며, 그후 한국의 對라트비아 수출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수입은 감소추세가 계속됨.

- 1998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수출은 라트비아가 EU산 제품에 대해 관세인하를 시작하면서 1999년부터 고전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들어 라트비아의 경제활성화와 함께 다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냄.

- 한국의 對라트비아 수입은 1997년부터 주요 수입품인 기계류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근까지 감소세가 계속됨.

□ 2002년 한국과 라트비아와의 교역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입이 1996년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이어져 수출증가, 수입감소라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됨.

- 2002년 한국의 對라트비아 수출은 전년대비 72.4% 증가한 1,655만 달러에 달했고, 수입은 同 21.5% 감소한 66만 달러에 불과하였음.

- 한국의 對라트비아 무역수지는 1997년부터 전환된 흑자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흑자규모는 2002년 들어 크게 확대되어 1,589만 달러에 달함.

□ 품목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의 對라트비아 수출은 자동차와 섬유류의 꾸준한 수출증가와 함께 2002년 들어 철강 및 기계류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최근 3년 동안 꾸준하고도 큰 폭의 수출증가를 기록하였던 자동차(MTI 품목코드 741)가 18.5%를 점유, 2002년 對라트비아 1대 수출품목이 되었음.

- 역시 최근 3년 동안 큰 폭의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는 인조섬유장섬유사(同 422)와 의류(同 441)가 각각 13.8%와 12.4%를 점유하여 2, 3대 수출품목을 차지함.

- 이밖에 2002년 들어 수출이 급증한 기타 철강금속제품(同 690)과 무선통신기기(同 812)가 각각 7.3%와 6.7%를 점유하여 4, 5대 수출품목을 차지함.

□ 한국의 對라트비아 수입은 2002년에 전년대비 502.5% 수입증가를 기록한 합금철선철·고철(同 618)이 30.8%를 차지, 1대 수입품목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신발(同 512)이 16.1%, 기타 기계류(同 790)가 9.1%, 인조섬유장섬유사(同 422)가 9.0%로 각각 2, 3, 4대 수입품목을 차지하였는데, 이들 품목은 모두 2002년 들어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음.

2) 투자

□ 2002년 12월말 현재, 우리의 對라트비아 직접투자는 아직 전혀 없는 실정임.

- 이처럼 라트비아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전무한 것은 시장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이나, 라트비아가 북유럽과 중부유럽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CIS의 관문인 점을 감안하면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라트비아는 정부의 관료주의, 부패, 조직범죄 등이 일부 투자장벽이 되고 있으나, 수출입, 외환의 환전 및 사용에 대한 통제가 없어 외국인의 투자와 송금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라트비아를 가장 비즈니스환경이 좋은 국가중의 하나로 보고 있음.

나. 주요 통상현안

□ 한국의 對라트비아 수출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이 지역에서의 공통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MFN 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의 차이에 따른 ‘지역별 관세차별’이라 할 수 있음.

- 라트비아의 최우선 통상정책과제가 EU가입과 인접국들과의 자유무역 확대에 있기 때문에 이들 특혜관세율이 적용되는 EU, EFTA, CEFTA, 터키 등의 국가들과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역외국가들과의 관세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2002년부터 EU, CEFTA 국가들에 대한 공산품 수입관세가 면제됨으로써 역내국과 역외국간 관세율 격차로 역외국산의 對라트비아 수출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對라트비아 무역수지가 2002년에 다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바, 이러한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심화는 라트비아측의 통상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국의 對라트비아 수입이 수출의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몇 가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바, 수입품의 다변화를 위해 양측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